

“생명에 대한 통전적 인식 가진 교회가 생명·생태·문명 창달의 플랫폼 되어야”

■ 창조와 생태 영성 회복(도시전환마을 중심으로) - 이박행 목사(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지난호에 이어서

2) 예수와 하나님나라 운동

1. 예수님은 하나님나라 도래를 선언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 회개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마을로부터 시작되었다. 새벽 한적한 곳으로 나가 가사 기도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할 때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

나19 감염 위기, 제4차 산업혁명은 목회와 선교를 예수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명·생태 목회는 어떤 것일까?

1) 전인적인 치유 공동체(막1:29-31, 막2:5)

- 시몬의 장모 열병 치유→심방, 소통을 통해 병든 개인과 가정을 회복시킴.
-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

니코노미아는 하나님의 경륜이나 청지기직(stewardship)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러 그 자신과 함께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 경제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재창조 활동에 동역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 속에 자연히 경제 문제가 포함된다.

5) 사회 구성원이 서로 섬기는 공

(universal), 종말론적인(eschatological)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진다.7)7) ED. by G. 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Grand Rapids: Erdmans, 1968), 200-207 ‘아이오노스’의 어근은 ‘아이온’인데, 시간적으로는 시대(age) 또는 영원성(eternity)이란 뜻을, 공간적으로는 세계(world)나 우주(cosmos)라는 뜻을 가진다.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시간적인

되어 있다.

5. 생명에 대한 통전적인 인식을 가진 교회는 생명·생태·문명 창달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는 하나님나라 가치로 거듭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자급하고, 정치적으로 자치하고, 문화적으로 자족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자발성, 자족성, 지속성이 이루어지는 마을, 이런 마을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세계로 나아가 살릴 구원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풀뿌리 목회이다.

6. 이를 위해 복음이 교회에서 나와서(탈교회) 마을로 들어가고, 교리에서 나와서(탈교리) 주민들의 생업과 삶으로 들어가며, 종교에서 나와서(탈종교) 구성원의 성품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생명목회는 마을을 교회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복음화(정의, 평화, 생명)하는 사역이다. 이것들은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신앙의 진정성이고 영성이다.

풀뿌리 목회운동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7.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타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뻐하신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인간과 동물, 생태가 공생 공존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로 심화된 빈부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생태정의회복과 사회적 경제활동, 지역사회 다이나미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가 포함된 마을목회는 ‘자급·자전·자치’로 대표되는 현대판 네비우스 선교정책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기후환경대응위원회 설치, 생태 및 일터신학 필수 교과목 개설, 생명생태목회를 위한 교육 매뉴얼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예수의 하나님나라 운동, 성전 중심 종교제의를 생명살리는 사역으로 변혁 경제, 인간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재창조활동에 동역자로 참여하는 방식

복음이 교회에서 나와서 마을로, 교리에서 삶으로, 종교에서 성품과 관계로...

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마가복음1:35~39절) 공생애 첫 사역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축사 사역을 하셨다. 회당에서 나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2. 예수의 하나님나라 운동은 성전(회당)에서 집(마을에 있는)으로, 성전 중심의 종교 제의(사죄 선포, 안식일 논쟁)를 생명을 살리는 사역으로 변혁시켰다. 더 나아가 예수는 마을공동체와 일상(일터)을 총체적으로 복음화 시켰다. 우리의 복음전도와 사회활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의 문제는 세속적인 영역 내에 머물러 있지 않다. 경제는 그것의 깊이에서 신앙의 문제 및 기독교의 구원의 문제와 조우한다. 레위기 25장의 회년제도가 상징적이다. 구원의 사사화가 아닌 공동체가 총체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나눈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첫 번째 설교에서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이 ‘회년의 성취’라고 선포하셨다.

3.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나라운동은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모든 피조세계가 생명의 부요함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기후온난화, 미증유의 자연 재해, 코로

나리”-->중풍 환자의 죄 사함을 선포 하심.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죄의 문제로 신음하는 인류를 온전케 하시는 전인치유(Holistic healing) 사역.

2) 밥상 공동체(막2:15)

• 죄인과 세리, 창기들과 식사→ 소외된 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들을 위한 구제 봉사.

•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체를 회복, 유지시키는 밥으로 오셨기 때문에 밥상공동체는 성례전적인 의미의 포함.

3) 문화예술 축제공동체(요2:1-11)

• 가나 혼인잔치-->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으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

• 이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생로병사와 회로애락에 따른 공감을 나누는 공동체적 사역.

4)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일터 공동체(요5:17)

•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나 나도 일한다”-->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생명을 전인적으로 회복시키셨고, 성령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시는 사역하심.

• ‘오이코노미아’는 경륜, 경제, 집의 뜻. ‘오이코스’는 신약성경에서 ‘성도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즉 성도가 삶과 인격을 나누는 공동체’로 쓰임.5)5) 경제나 경영(administration)을 말하는 헬라어 오

동체(요13:14)

•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건강한 사회를 위해 상호 봉사 생활 실천.

•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하나님나라는 사람의 섬김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 사역.

6) 의식개혁을 위한 평생교육 공동체(막6:6)

• “가르치시고”-->율법의 핵심 정신인 산상수훈의 삶과 회개를 실천하도록 가르침.

• 각 영역과 사역에 필요한 것을 생애주기에 따라 평생 학습공동체 사역을 감당해야 함.

7) 지구 돌봄을 위한 환경보존 생태공동체(막16:15)

•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to every Creature)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 창조질서 문화명령(창1:28절)과 대위임 지상명령은 일치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명의 일원으로서 지구 돌봄(Creation Care) 사명을 감당.

4.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하나님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 헬라어에는 생명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비오스’이며 다른 하나는 ‘조에’이다 ‘조에’는 내연적인(intensive) 생명을 말하는 반면, ‘비오스’는 외연적인(extensive) 생명을 의미한다.6)6) 히브리어 하이임은 ‘비오스’의 의미를 내세우는 ‘조에’의 의미를 갖는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란 개념이 ‘영생’이란 말로 종종 표현된다. ‘영생’은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노스’(eternal life)로 되어 있다. 여기서 형용사 ‘아이오노스’란 단어는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말임에 유의해야 할 것 같다. 헬라어 사전에서 보면 그 ‘아이오노스’라는 형용사가, 신적인(divine), 본질적인(essential), 영원한(eternal), 우주적인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기업.



복내마을 주민회의.



마을목회교육.

2025

건강한 교회와 사회 포럼

하나님의 정의와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국가관

부제: 기독교 근본주의와 극우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25년 4월 29일(화) 오후 7시

광주YMCA 무진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6)

참여신청

1부 여는 행사

- 환영사: 강성률 장로(광주기요실 공동대표)
- 여는 기도: 홍인화 권사(The1904 공동대표)
- 축하 연주: 강명진 장로(양상블라코 대표)

2부 포럼 진행

- 좌장: 이박행 목사(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대표)
- 주제: 박성철 박사(경희대학교 공경대학원 객원교수)
기독교 근본주의와 극우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대안적 방향성
- 주제: 김정태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교회개혁 현장에서 본 국어 개신교의 전개과정과 그 대안
- 주제: 송오식 박사(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주제: 강성열 박사(호남신학대학교 구약학 명예교수)
- 종합토론 및 자유발언
- 입장료 채택: 이은기 사무총장(광주YMCA), 윤정순 사무총장(광주YWCA)

주최: 건강한 교회와 사회 포럼 추진위원회

공동주관: 광주YMCA, 광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참여기관: 광주YWCA, 광주NCC, 광주시민회, 나라사랑기도포럼, 생명사랑기행회, (사)실로암사협, The1904, 광주무릎교회, 광주발원교회, 광주청사교회, 광주CBS, 미션21, 한국복음방송

문의: 062-232-6133 광주YMCA

추진위원: 강성률, 강성열, 고경태, 김동화, 김용복, 김석용, 김선식, 김성규, 김순자, 김정은, 박창수, 박현주, 송오식, 윤준주, 이박행, 이은기, 장한관, 정경희, 정영선, 조규성, 조우성, 진선기, 홍인화